

기고



주석중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
(전 전남대 교수)

광주시장 선거 '원팀 경선' 을 촉구한다

치열한 예비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실망, 그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 조기 과열 후유증 우려

또 광주시장과 총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조기과열된 선거분위기'에 대한 당 안팎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의 입지자들은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인지도 높이기와 세몰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고



김조일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에게는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급하게 한다. 옆에서는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를 재빨리 달려 달라고 두 손을 모은 채 울먹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제천과 같은 대형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각각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환경이나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출동벨이 울린다. 소방차에 올라 출동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동안 현장에도 착한다. 가족이 물놀이를 왔다가 아빠가 물에 빠진 상황, 아빠를 재빨리 건져 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입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꺼내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의 경우 그동안 일어났던 일부 후보 간의 과열경쟁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원팀경선'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네거티브전 근절 선언 필요

시장선거의 경우 150만 시민을 먹여 살릴 알차고 내실있는 공약들을 개발해 유권자와 시민에게 펼쳐 보이고 평가를 받는 자세로 경선에 임해야 한다.

사설
정치권 본격적인 개헌논의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시했다.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정책 지속성이 관건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지원,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innam Daily,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새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목표로 선정,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김상철
구례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제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입 확보를 위해 주정차 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속 세상

책상밑으로 신속히



19일 오전 부산 북구 금곡동 금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에 대비해 방재 모자를 쓰고 책상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독자광장

자전거타기 좋은 봄날이지만 그만큼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이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가격이 몇 백만 원대를 호가하자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머@세상

◇학교가기 싫어서
한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 내며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참새 교통사고
참새 한마리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며 대답했다.
"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Table with life information and hotlines, including emergency numbers and service centers.